

지역 매 아 리

부안해경, 상왕등도 응급환자 헬기 이용 긴급 후송

부안해양경찰서가 위도면 상왕 등도 응급환자를 헬기 이용 긴급 후송했다.

부안 해경에 따르면 12일 오전 6시 55분경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에 거주하는 A씨(54, 왕등도 거주)가 자택 목상에서 추락하여 의식이 없다는 구조요청을 받고 전북 소방헬기를 이용해 긴급 후송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호흡은 가능하나 의식이 없고, 두부출혈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신고를 접수받은 부안 해경은 경비헬기를 급파하였고, 전북 19소속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환자 A씨를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 중이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아산면, 환경시설사업소 재활용품 선별현장견학 체험

고창군 아산면(면장 이종연)이 새마을부녀회 및 지도자 등 60여명과 함께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분리수거의 중요성에 대한 현장체험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현장체험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방법,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등 일상생활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교양에 참여한 현장아 부녀회장은 "직접 체험해보니 가정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배우고 체험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하고 음식물 쓰레기 역시 분리 배출과 물기를 제거한 후 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임실군 신덕면-경기도 분당구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

임실군 신덕면이 경기도의 '강남격'인 분당구와 손을 맞잡고 지역 농산물 판매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신덕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암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아암동 주민자치위원회 30여명은 신덕면을 직접 방문해 신덕면 주민자치 위원회 20여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교류장을 마련했다.

아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올해도 11월에 신덕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정 및 장소는 물론 절임제주 등 농가의 소득을 많이 올릴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상가 활성화·침체된 원도심 활력

정읍시-태평로 건물주 협의회, 임대료 안정화 상생협약 체결

정읍시와 태평로 건물주 협의회(회장 김상수)는 12일 태평로 임대료 안정화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정읍시와 태평로거리 건물주가 임대료를 안정화시키는데 상호 협력함으로써 상가의 활성화를 꾀하고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뜻을 함께 하면서 성사됐다.

관련해 시는 지난 8월부터 두 달여

에 걸쳐 건물주들과 대화를 갖고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약서는 ▲임대차 기간의 최소 보장기간 10년 적용 ▲임대료는 현시점에서 10년 간 동결하고 인상률은 9% 이하 내에서 상가 영업 상태를 고려하여 조정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평로 상생협약은 지난 2016년 4월 새암로와 올해 2월 쌍화차거리 협약에 이은 세 번째 결실이다.

협약식에는 건물주 10명이 참석했고 새암로 상가연합회 이재만 회장과 쌍화차거리 상인회 이공식 회장도 참



정읍시와 태평로 건물주 협의회(회장 김상수)는 12일 태평로 임대료 안정화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석, 축하의 뜻을 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임대료 급상승으로 원주민들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자율적 상생협약에 동참해주신 태평로 건물주들이 김시로 되며 앞으로도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진드기 매개 질환 주의 '당부'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쯔쯔가무시증 등 감염 예방 수칙 준수해야

정읍시보건소가 진드기 매개 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본격적인 기을철로 접어들면서 눈·발·작업 등 이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질환 발생 우려가 높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한다. 특히 남서부지역에 서식하는 훨씬진드기 등의 유충이 활성화되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아암동 주민자치위원회 30여명은 신덕면을 직접 방문해 신덕면 주민자치 위원회 20여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교류장을 마련했다.

아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올해도 11월에 신덕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정 및 장소는 물론 절임제주 등 농가의 소득을 많이 올릴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실=진홍영기자

활동하는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한다.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된 텔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한다.

고열과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질환 발생 우려가 높다.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3년 국내에 첫 발생 사례가 확인 된 바 있다.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텔진드기에 물려서 주로 발생한다. 1~2주 정도의 잡복기를 거쳐 발열, 소화기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신경학적 증상(경련, 의식저하),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예방을 위해서는 이외활동 시 뜨지리를 사용하고, 풀밭에 옷을 벗 않고 놀거나 용변을 보지 않아야 한다"며 "아외작업 시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팔 안으로 접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예방을 위해서는 아외작업 시 뜨지리를 사용하고, 풀밭에 옷을 벗 않고 놀거나 용변을 보지 않아야 한다"며 "아외작업 시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팔 안으로 접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인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민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인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민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인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민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인군,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지도단속

부인군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하려고 10월 한 달 간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군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육·해상 동시에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상에서는 무허가조업 및 허가조업 위반행위,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시용량 위반 행위,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받은 구역 이탈 불법조업, 포획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육상에서는 어린 고기 불법포획·유통 판매 행위, 불법어구 제작·보관 유통행위, 기업형 불법조업과 조직적 불법 수산물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부인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민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인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민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18일 정읍 샘고을시장 특설무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오는 18일 오후 5시 정읍 샘고을시장 내 평화마차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이용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해 많은 이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자리다.

개그맨 황기순씨가 진행자로 나서고 예산을 거쳐 선별된 12명의 시민들이 장기를 겨룬다. 또 현숙과 한혜진, 김국환, 오로라, 진해성 등 인기가수들이 축하공연도 펼친다.

특히 당일에는 어제(한) 야시장도 함께 운영된다.

향토음식과 퓨전음식, 다문화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와 각종 수공예품에서부터 개성 넘치는 각종 아이디어 상품도 판매한다.

당일 행사는 11월 4일 오전 10시

/정읍=김대환기자



중국 서주시 원예교류방문단 정읍 방문

원예교류 활성화 모색·정우면 파프리카 원예시설 단지 등 견학

정읍시 국외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강소성 서주(徐州)시 원예교류방문단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정읍을 찾았다.

외사관공식 순위민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5명의 원예교류단은 방문기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정읍시의 원예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 시간 원예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어 정우면 대사리 파프리카 시설 하우스 단지 등 원예시설 현장을 견학했다.

방문단은 중국의 원예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와 최첨단 원예 시설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읍시와 서주시는 지난 2000년 자

매 국제미술교류전, 체육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교류해오고 있다. 관련해 탁구와 배드민턴,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류단이 상호 방문, 무술사범과 친선경기 등을 가졌다.

지난해에도 체육분야와 미술분야 교류단이 각각 방문하는 등 우호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양 도시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체육, 문화·예술, 원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우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위민 단장도 "향후 원예분야뿐만 아니라 전 농업분야로 교류가 확대될 기회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봉주를 선택했습니다.



KOREAN TRADITIONAL WINE GANGSANMYEONGJU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봉주와 함께 오디주의 칠맛을 느껴보세요.

오늘날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너머히 넣고 점점스레 빛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깊끔함을 한별 술로 빛았습니다. 부안의 벼산반도 청정해역의 해물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달도와 질이 아주 다틀립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은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양한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민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민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민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민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민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민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민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